

# '하늘·바다·땅길' 급변하는 새만금

## 기반시설, 내부개발용지 개발도 순항

새만금의 일대 도약을 이끌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부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새만금이 급변하고 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포함한 주요 SOC는 올해 말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준공에 들어가는 등 한때 터덕거린 과거를 뒤로 하고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동서 중심축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남북도로와 함께 공항, 항만, 철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4차로 20.4km에 달하는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며 새만금 접근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물론 새만금에 최초로 개통되는 내부 간선 도로라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

산연연구용지에서 관광레저용지 방향으로 건설되는 남북도로는 2023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6~8차로 27.1km에 이르며 9647억원의 국비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1단계인 3·4공구는 2022년 준공, 2단계인 1·2공구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예타면제의 성과를 낸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규

모가 확대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등 전기를 마련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도 새만금 발전을 위한 견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늦어도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24년 착공되면, '27년부터 새만금 신항만으로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하게 된다.신항만 공사는 기존 2~3만톤급 이던 부두시설 규모를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1단계 부두 2선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가호안 매립공사, 신항만 인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총 9개 선석 중 2선석이 먼저 준공되어 새만금 내 물류를 처리할 예정이다.

SOC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새만금은 하늘길, 바다길, 땅길로 연결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갖춘 지역이 돼 대한민국과 전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기반시설뿐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발전과 기회를 약속하는 땅, 새만금으로서의 본모습을 차츰 갖춰가고 있다.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의 32%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2022년 모든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농산물이 세계로 수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수제는 새만금호수와 농업용지를 구분하며 내부 도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에는 방수제 55.4km가 이미 완공됐으며 2021년이 되면 62.1km 전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다. 최근 SK와 GS를 비롯한 대기업의 연이은 투자협약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산업단지 개발도 빠르게 매립,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현재 2개 공구가 조성됐고 1개 공구가 조성 공사를, 1개 공구가 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입대용지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 2년간, 20여 개사가 입주계약을 맺고 그 중 14개사가 공사 중에 있어 새만금 산



김승일기자

업을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될 부지의 매립공사도 빠르게 진행돼 현재 39.7%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어 잼버리 개최 전인 2022년상반기에는 전체면적 8.8㎢의 매립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용지조성은 새만금에 동맥이 뚫리고 삶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며 "새만금 SOC를 따라 뜨거운 투자 활력이 돌게 되어 새만금이 글로벌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도 정부와 발맞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서울시, 개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68세대... '23년 3월 입주

## 공공 50세대, 민간 218세대...11월 5일 추진지구 지정 결정 고시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개봉역 역세권 청년주택' 268세대가 건립된다.내년 3월 중 착공해 '23년 3월 입주 예정이다.50여년 된 기존 노후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4,125.19㎡ 규모의 지하3층~지상20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모두갖출 불박이 가전·가구 무상 설치, 운동시설, 코인세탁실 등을 설치해,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지상2층~20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을 모두갖춤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또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를 계획했다.지상1층엔 운동시설, 코인빨래방 등의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특히 지상2층 및 지상17층엔 야외 휴게정원을 계획, 입주청년들의 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청년들의 동아리시설 요구에 충족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했다.건축물 배치와 주동배치도 개봉역의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건축물 배치를 가로대응형 상업시설로 저층부를 계획하고 상층

부는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아울러 시는 민간 사업시행자 측도 개봉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에 인·허가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20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안을 통합접수했다.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8일 고시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비해 획기적으로 빠르게 처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179-11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추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5일 결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2년 1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2023년 3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번 구로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개봉동 청년주택으로 인해 청년주택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한국, G20 표준 서밋에 K-방역과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소개

## G20, COVID-19 시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Call to Action 채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위원이 지난 4일 사우디 아라비아가 영

상회의로 개최한 'G20 리아드 국제표준 서밋'에 참가해, G20 국가에 K-방역 표준화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약속하고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표준화 전략을 소개했다.이번 회의는 사우디의 G20 정상회의의 주최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세계 3대 표준화기구 사무총장, G20 국가별 표준기구 대표가 참여해 팬데믹 대응 및 디지털 전환에서 국제표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위원장은 주최국인 사우디 표준청장으로부터 '디지털 전환과 국제표준의 역할'에 대

한 패널 세션 참여를 요청받아,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과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적 연대가 필수"고 강조했다며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절차와 기법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과 '비대면 시험인증제도'를 소개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경험 공유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청받았다.서밋에 참가한 G20 표준기구와 국제기

구 대표들은 팬데믹과 같은 국제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각국의 비전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특히 IEC, ISO, ITU 등 세계 3대 표준화기구 대표들은 국제 표준 서밋 참석자의 지지 아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있어서 국제표준화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활동할 것을 촉구하는 'Call to Action'을 채택했다.디지털 전환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부 규제와 기업 책임 사이에서 표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창출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박상찬기자



# 사용이 편리한

#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추승우 의원, 안전한 전동키토드 이용문화 정착 위해 서울시 정책 마련 속도내야

최근 3년간 전동키토드 사고 213건 발생,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고 증가 우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지난 5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전동키토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전동키토드 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0월 기준 서울시 내에는 16개 업체가 약 36,000대의 공유형 전동키토드를 운영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공유형 전동키토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관련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전동키토드 사고는 총 213건으로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13건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116건, 사람과의 충돌이 87건, 단독사고가 10건을 차지한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3세부터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키토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고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된다.

현행 법령상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적정 보상이 어렵고 안전운행 미이행 시 범칙금 부과 등 처벌기준이 부재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동키토드 운영업체 ㈜울물로 ㈜피유엔피 대표는 "관련 법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면 그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모빌리티

산업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 의원은 "서울시가 전동키토드 공유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민관합동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강조하면서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 운영업체의 책임감,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3박자가 어우러져야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학교신설 예측가능성 높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학교시설 설치시기 및 경비 조달방안 확인해야



김민기 국회의원은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과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비율도 1% 이상이어야 하는 등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 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용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교육청이 학생 배치계획을 수

정해 용지를 매입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김기서 충남도의원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대책 시급"

충남 40세 미만 청년농가 2010년 대비 86% 감소...감소를 전국 최고수준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만 3143가구였다가 지난해 6859가구로 10년 새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감소 폭은 충남이 가장 컸다. 충남의 청년농가는 같은 기간 3959농가에서 545농가로 86.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다. 정부가 2018년부터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도는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2024년까지 1조 37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청년창업농 정착금을 최대 7년간 지원하고 있다. 농사지를 토지가 부족한 것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중 하나다.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소득 발작물에 시선을 돌리는 추세지만,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논이 96%, 밭과 과수원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빠르게 급감하면서 농촌지역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소멸 위기지역인 농어촌을 살리고 충남의 미래 농업 발

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량이 조금만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으면 수입산이 범람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이가 울면 사탕 물려 달래는 식의 농업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지원과 연계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지난 5일 양주 경기섬유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소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 방안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를 좌장으로 해 경기연구원 문미성 박사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이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홍진동 과장, 경기도시공사 박재언 처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종빈 팀장, 경기북부중소기업회 이희건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원 의원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한 경기 북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기남부와 북부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역점 사업이며 도시환경위원회

에서도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조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입주기업의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조기분양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과 별도의 분양성 확보 및 경영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찬/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상찬 / 사장 박유석 / 편집국장: 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피니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 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강화

### 여성 안심지킴이 운영, 안심벨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

진주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심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금년 6월부터 활동 중인 여성 안심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2인 1조, 2개조로 편성되어 상시로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 409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에 안심벨 설치 사업을 2018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추가 설치를 완료해 총 9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 안심벨 등 안전시설을 갖추게 됐다. 안심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벨을 작동시키면 경찰서 112와 통화되며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며 블랙박스는 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됐다. 한편 시는 올해 남·녀 화장실 출입구가 같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간 공

용화장실 2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출입구 분리 사업을 시행했고 시설이 오래되고 낡은 응석사 공중화장실 등 2개소를 리모델링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몽호/기자

# 임실군,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 이달 27일까지 약 60여개소 사업장 집중점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총력

임실군이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

4일 군에 따르면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인 건설공사장 토사 운반차량을 중심으로 이달 3일부터 27일까지 약 60여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을철에 동절기 공사중지전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군은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방진벽, 방진덮개, 세운 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



영여부, 작업장 살수시설, 이송·수송 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대규모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과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장 중 건설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저감을 유도해 비산먼지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대기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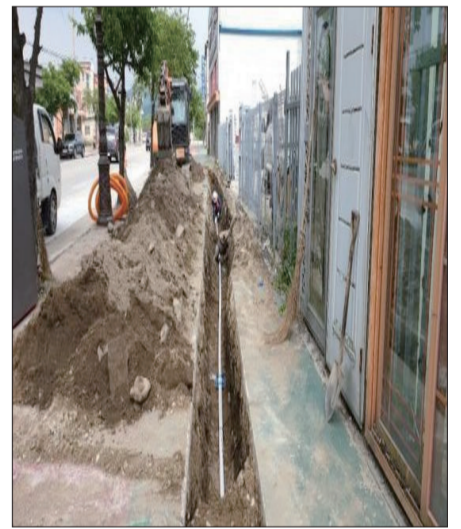
# 남원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막바지 총력

### 노후수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에 기여

남원시가 올해 추진 중인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어 남원시의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이 기대된다. 남원시 유수율은 2018년 통계 기준 75.4%로 전라북도 평균인 71%보다 4.4% 높으며 노후관 비율 또한 전라북도 평균 보다 15% 낮은 1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는 수치이지만 남원시는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을 추진하며 최근 전국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녹물, 이물질 등의 수도물 사고를 예방 중이다. 2020년도 상반기 시행한 하정동, 노암동, 여현동 등 6개 구간에 대해 총 6.4km를 10월 중 교체 완료했으며 하반기 시행한 주생면, 신정동 구간 총 2.8km를 2021년 6월까지 교체사업을 완료해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노후 진행 중인 수도관을 조기에 교체해 남원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백군기 시장, 영덕1동 주민들과 주요 민원현장 점검

백군기 용인시장은 5일 기흥구 영덕1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주요 민원 현장을 둘러보며 불편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시의회의원, 이정표 기흥구청장, 지역 주민 등 10여명은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젊음의 광장, 영덕천, 덕골근린공원을 함께 걸으며 주요 민원사항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박순옥 새마을부녀회장은 "올해 젊음의 광장에 조성된 국화꽃 화원이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손된 보도 등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선애 동장도 "흥덕지구 내 공사현장 등에서 페인트 도색 후 오폐수를 영덕천으로 유출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희망일자리 2명을 배출해 지속 감시를 하고 있으며 폐수유출이 의심될 때마다 구청에 즉시 신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시장은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선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덕천 인근의 덕골근린공원 저류지도 잘 정비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행위 차단 효과 기대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대폭 상향 지급하는 등 쾌적한 생활개선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4일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

간시간대 은밀한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로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된다. 지급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

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현을 시장은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시민의 자발적 감시로 불법행위 차단 및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선수/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 내 손 안에 경복궁, 영상으로 만나는 서울 도보해설관광 코스

경복궁, 낙산성곽, 서울로 등 서울 대표 인기 도보해설관광 코스 영상으로 제작

4일부터 경복궁과 낙산성곽, 서울로 7017 등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손 안에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 해설과 함께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서울 도보해설관광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서울 도보해설관광을 체험하고 개별 및 비대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는 도보해설관광을 모색하고자 PC 및 모바일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서울관광 유튜브 채널 Visit Seoul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3편의 영상은 경복궁, 낙산성곽, 서울로 7017 야간코스 가장 인기 있는 대표 코스인 경복궁과 낙산성곽 코스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뒤이어 새로 개편된 순례길 코스인 한강 순례길과 전통적 인기 코스인 인사동, 2019년 새로 개설한 국립중앙박

물관 정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제작 및 공개되는 6편의 영상은 대중적인 인기 코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코스를 적절히 조화해서 선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공개한 창덕궁, 성북동, 서울로 7017, 정동-경희궁 4편의 영상은 2만 여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직접 가보기 힘든데 영상으로 보니 좋다 빨리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에 쑥쑥 들어온다 실감나는 해설로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상반기 공개된 4편의 영상은 5월 공개 후 지금까지 창덕궁 9,030여 회를 비롯 총 19,337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반기에 제작 및 공개되는 6편의 영상은 외국인도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자막도 포함한다. 올해 제작된 10편은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서울 도보해설관광을 간접 홍보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 과도기적 단계이나, 궁극적으로는 코스 곳곳에 QR 코드 등을 배치해 혼자서도 모바일을 이용해 도보해설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서울 도보해설관광은 중단 중으로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와 감염병 위기단계 등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서울 도보해설관광 영상은 비대면 또는 소규모로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간접 체험하는 새로운 시도”며 “총 10편의 서울 도보해설관광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건축가 꿈꾸는 청소년 위한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11월5일부터 온라인 강의와 교재, 체험키트를 집으로 배송받아 안전하게 학습

서울시 문화비축기지는 이달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똑딱 똑딱 건축탐색’ : 생태·친환경 건축가 진로체험을 운영한다. ‘똑딱 똑딱 건축탐색’은 자유학년제 연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줄어든 청소년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생태·친환경 건축가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제작된 이론과 실습 영상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탐색·설계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경험하는 공간탐방서유비축기지에서 새롭게 문화공원으로 변화한 문화비축기지의 공간탐방영상과 친환경 건축기술을 둘러보고 생태·친환경 건축의 특징과 관련 건축가의 직업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탱크설계 체험직접 공간을 상상해 설계하는 체험활동으로 ‘미래세대가 상상하는 새로운 탱크 공간, 새로운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상상하기’를 체험키트를 활용해 만들어 본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학교, 교육단체 등은 서울시공공서비스 예약에서 신청가능 하며 1인당 참가비는 5천원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참여 후 ‘내 작품 뽐내기’ 이벤트 참



가자 전원에게는 기프트콘을 선물로 제공한다. 교재와 체험키트는 신청 순서대로 배송일정에 따라 각 가정으로 배송되며 수업영상은 접수자에게만 개별 공개된다. 이벤트 접수는 12월 11일까지이고 우수작은 12월 18일에 문화비축기지 블로그를 통해 발표하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20명에게는 문화비축기지 에코가방과 디자인 수첩 등이 들어있는 푸짐한 기념품

세트를 제공한다. 남길순 서부공원복지사업소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친환경 건축가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화비축기지의 환경적·건축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강동청년축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제1회 강동청년축제 개최

강동구에서 제1회 강동청년축제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강동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올해 청년기획단 12명과 함께 청년을 위한 진취제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총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생활 공백을 채우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가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캠핑 컨셉의 공문장인 ‘텐트콘서트’를 개최한다. 공문장과 세레머니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강동구청 열린관에서 열린다. 청년의 언어와 문화로 청년기본법 시행과 제1회 청년축제 개최를 기념하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시대 다양한 청년계층이 온택트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일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가와 예술인들을 위해 사업장에 찾아가 현장 인터뷰를 통해 물건을 돌려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청년축제’도 있다. 온라인 축제로는 쇼호스트



가 청년창업가·예술인의 제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와 함께 소통하며 경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우리동네 ‘감청마켓’은 물론 평일밤 직장인의 마음을 달래줄 ‘심야시당’, 돌봄과 독박육아에 지친 청년엄마를 위한 ‘우아한 엄마들’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방구석에서 노래와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흥과 기를 대방출하는 ‘방구석 춤파티’,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청년 e스포츠 대회’, 평소 본인의 인상이 궁금하거나 고민이었던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인상적인 상담’, 그리고 SNS 홍보이벤트 ‘보물찾기’까지 청년들이 관심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황규석/기자

# 의정부시, 스마트 문화뉴딜 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의정부형 스마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비대면 & 온라인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개발하는 문화도시 조성 정책인 문화뉴딜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생활문화SOC를 확충해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하고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디지털 문화 뉴딜사업 추진으로 휴먼·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뉴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문화뉴딜은 문화도시조성과 온라인 문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개발, 미술전문 문화자원 콘텐츠 구축, 차세대 스마트경기장 조성,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 사업으로 3개 분야 6개 사업에 시비 70억원의 투자로 일자리 230여 개가 창출되는 사업이다. 대표사업인 시민 참여형 문화자원 발굴 사업은 문화도시 확산을 위해 문화인력 및 지역특화문화를 육성하고 시민기록자들이 잊혀져가는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것으로 도시역사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문화적 역사자료

로 보존하고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문화자원을 아카이빙 플랫폼으로 구축해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으로 인적 문화적 자원의 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의 문화생산 및 향유활동을 지원하는 공유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스마트경기장 조성 체육복지 실현 차세대 스마트경기장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무관중 스포츠 경기에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중계방송과 실시간 경기 정보를 구축·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정부시내 전체 체육시설 47개소에 wifi망 VR·AR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20년 11월에 공공wifi 구축사업에 선정된 의정부실내체육관 내에 9.6GB속도의 전용회선 설치를 시작으로 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및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개발 등 코로나-19에 대응하

김영근/기자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김 전복 대파 울금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 2020 특별기획 'Semi-festival, 안동에 가면' 총평

## 경북교육청, 지역화 교재 '안동, 봉화 독립운동사' 발간

### 코로나 19 속 언택트 축제의 새로운 장 마련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한 'Semi-festival, 안동에 가면'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지역 문화공간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자, 유튜브 등 안동 문화예술 전반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이 함께 만들어진 공연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그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오랜만에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더욱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다소 완화된 집합을 준수한 이번 축제는 지역 주요 관광지 및 문화공간에서는 게릴라 버스킹 공연을, 탑총공원에서는 관객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며 진행했다. 모든 공연은 자유로운 현장 관람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유튜브 생방송을 함께 진행했다.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객석을 배제하고 외곽에는 늦가을 햇볕과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텐트를 설치해 그동안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공연관람 문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추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들은 편집해 다시 온라인에 업로드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동의 대표 관광지에서 진행한 행사로 아름다운 안동의 가을을 이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등 안동문화관광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계절에 안동 문화예술인들의 향연으로 진행된 이번 'Semi-festival, 안동에 가면'은 가을의 정취를 예술로 잘 담아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안동에서 활동하는 가수, 배우, 무용가, 악기연주가 등 100여명의 팀이 일주일간 안동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관련 종사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획, 연출, 운영 분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0 취소의 아쉬움을 작게나마 달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특히 관광지와 문화공간에서 진행된 게릴라 공연은 깊어가는 가을날의 정취가 아름다운 안동의 풍경과 더해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낮 시간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은 공연을 관

람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지만 일교차가 큰 요즘 야간에 진행된 공연들은 쌀쌀한 날씨로 인해 공연자와 관객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코로나 19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이번 행사 역시 오프라인 공연행사와 온라인 생방송을 병행해 제공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

온라인 방송의 경우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수요도 많아지면서 공급을 맞추기 위해 많은 초보자들도 도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튜브, 영상제작자, 촬영기사, 편집기사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만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관련 종사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획, 연출, 운영 분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0 취소의 아쉬움을 작게나마 달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특히 관광지와 문화공간에서 진행된 게릴라 공연은 깊어가는 가을날의 정취가 아름다운 안동의 풍경과 더해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낮 시간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은 공연을 관

때문에 행사 기간 중 주말 하루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했다. 행사 일정 중 YMCA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은 화려한 날씨의 주말을 맞아 그동안 갖고 닳은 실력들을 선보였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로 해금 흐트한 미소를 짓게 했다.

'Semi-festival, 안동에 가면'은 지역 문화인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작게나마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공연자들도 경제적 도움과 함께 시민들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 받은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축되었던 문화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갖고 닳았던 역량을 펼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시도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얻었다. 코로나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우리 안동의 문화인들도 코로나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힘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과 공연, 이벤트로 중무장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영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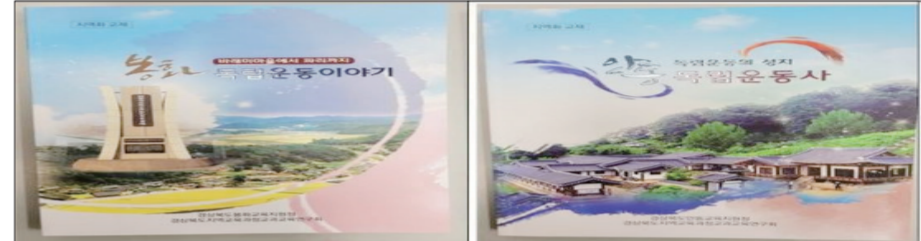
### 지역교육과정 교과교육연구회 지역 독립운동이야기 교재로 개발

경북교육청은 지역교육과정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독립운동이야기 '안동, 봉화 독립운동사'를 발간·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봉화 지역 독립운동이야기 '바래미마을에서 파리까지'를 주제로 독립운동의 역사, 봉화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유적지, 독립운동의 길 따라가기 체험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를 개발했다.

또한 2019학년도에는 안동 지역의 독립운동이야기인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독립운동사' 지역화 교재를 개발·보급했다. 독립운동 교과서는 관내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쉽고 재미있게 수업하며 실제 우리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북교육청은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유적지를 직접 체험하는 역사탐방도 실시했다.

송인용기자



## 경주 양성자가속기, 반도체·우주산업 협력 개시

원자력연구원·우주기술훈협회와 협약 체결



국내 유일의 경주 양성자가속기가 우리나라 우주 기술과 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 양성자과핵연구단은 2일 양성자가속기를 우주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우주기술훈협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성자가속기 기반 우주 부품 시험·분석 인프라를 이용한 국내 우주 산업 기업체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의 성능 향상 및 확충을 위한 상호 협력, 우주 기술 공동연구 등이다. 최근 국내 반도체 및 우주 산업 기업들이 양성자가속기 활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양성자과핵연구단은 양성자가속기를 현재 100MeV급에서 200MeV급으로 증설해 '반도체 및 우주부품 시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국내 반도체 및 우주 산업계에서는 개발 단계의 반도체 소자, 우주 부품 등을 경주의 100MeV 양성자가속기로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최종 시험은 최소 200MeV급 가속기를 필요로

해 미국·일본 등의 해외시설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반도체 및 우주 기술의 고도화와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국제 표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양성자과핵연구단은 양성자가속기 증설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우주기술훈협회는 반도체 및 우주 부품 시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

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및 우주부품 시험 플랫폼 구축 계획을 조기에 수립·추진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 양성자과핵연구단장은 "과기부, 경상북도, 경주시 등 유관기관은 물론 관련 산업체와 협력해 양성자가속기의 200MeV 증설과 반도체 및 우주부품 시험 플랫폼 구축 계획을 사업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 경북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3년연속 전국 최다확보

청년일자리 49개 사업 선정, 국비 363억 확보, 청년일자리 3500개 창출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국비 363억원을 확보해 3년 연속 전국 최다 국비 확보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49개사업이 선정돼 전체예산 2327억원 중 36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294억원, 올해 338억원에 이어 민선7기 시작 이래 3년 연속 17개 시·도 증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국비 363억원을 포함 총 801억원을 투입해 3500여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탈피한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일자리 발굴 모델로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등 4개 유형별로 청년들에게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 16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코로나 대응 주요사업은 재택근무 등 비대면·언택트 분야 일자리와 디지털 혁신·빅데이터 구축 일자리 등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일자리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

자리사업으로 총 예산 763억원을 확보해 청년 31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채용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성장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성과를 지역 청년과 기업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인력충원을 위한 단비가 됐다"며 "그 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구직 청년과 채용기업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요 또한 많은 만큼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 스마트관광 도시 '안동' 조성 위해 손을 맞잡다

###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관광드레센터가 주관하는 '안동관광 상생협업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데이'가 4일 오후 1시30분에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이후 안동관광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스마트관광협회와 안동관광드레센터, 안동시 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등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기획해 대면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1박 2일로 진행된다. 첫째 날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이영근 한국스마트관광협회장

이 '위드코로나 시대 트렌드 변화와 스마트관광' 윤유식 경희대 교수가 'MICE 산업 발전 전략 및 사례' 전미경 경북관광드레센터장이 '거점도시 안동과 지역 관광 콘텐츠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 한국스마트관광협회 소속 관광기업으로부터 안동시와 경북북부지역 관광발전 제안을 듣고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둘째 날은 안동의 숨겨진 비경 만휴정과 목계서원을 방문하고 고택에서 술담그기 등을 체험하는 팸투어로 마무리된다.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국내 관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지역 관광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 봉화군,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도전

10.26. ~ 11월 5일까지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다락방

봉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참여·사회적가치분야 우수사례 TOP 96으로 뽑힌 가운데, 왕중왕전 온라인 국민투표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에 시작된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투표 아이디를 생성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1개 분 야 당 4개의 사례에 투표해야 투표 결과에 반영된다. 온라인 2차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된 16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사례는 국민·전문가 심사단의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린다. 앞서 봉화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0 경상북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다락방'이 라는 주제로 1차 전문가 서면심사 및 온라인 국민심사와,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차 발표대회를 거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다락방"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휴식과 친목,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조성을 주내용으로 특히 정책수요자들이 사업 계획부터 운영까지 함께 참여한 혁신적인 주민참여형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 더 군민중심의 참여·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

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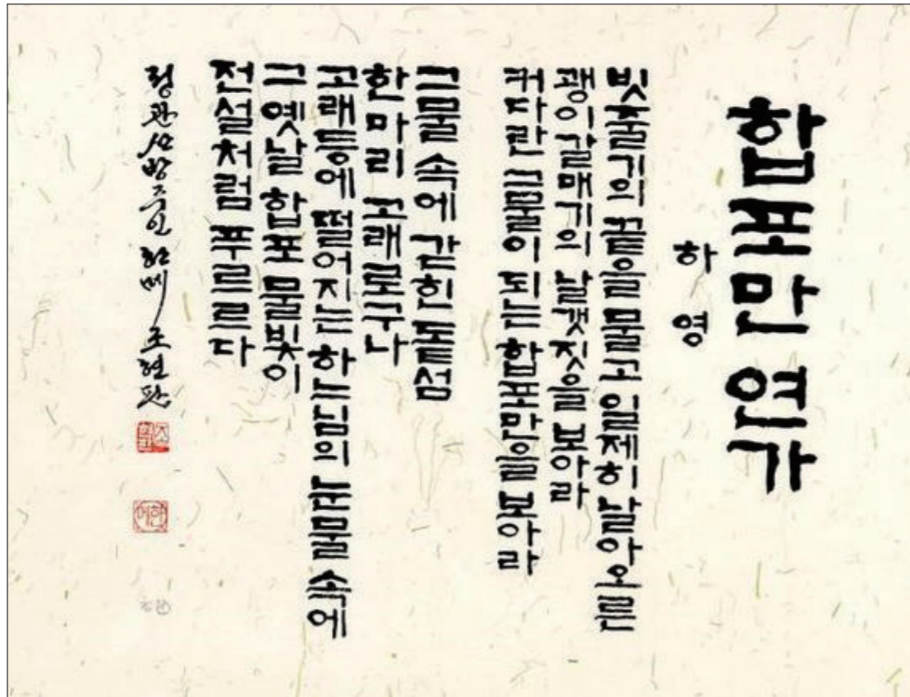
송인용기자



# '창원의 시' 묵향을 만나다

마산문화관, 7일~12월 6일 '서예로 만나는 창원의 문학' 전시회 개최

창원시립 마산문화관은 오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47회 특별기획 전 '서예로 만나는 창원의 문학'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창원 통합 10주년 기념으로 기획했으며 마산문인협회, 창원문인협회, 진해문인협회 회원들의 시 작품 47편이 전시될 예정이다. 서예는 한해서 예연구원장인 조현관 선생이 맡았다. 마산문화관은 앞서 '허당 명도석 선생 유작시 전시회', '캘리로 만나는 3·15의거시 전시회'를 개최해 통합의 정신을 애국심과 민주정신에서 찾는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시 속에는 창동 골목과 마산항, 주남저수지와 용지공원, 곰메바위와 천자봉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의 모습과 전이 축제, 아구찜 같은 먹거리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작품들은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다시금 우리 지역에서의 삶과 사람을 되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빛줄기의 끝을 물고 일제히 날아오른 / 꿩이갈매기의 날갯짓을 보아라 / 커다란 그물이 되는 함포만을 보아라 // 그물 속에 갇힌 돌섬 / 한 마리 고래로구나 / 고래등에 떨어지는 하느님의 눈물 속 / 그 옛날 함포 물빛이 / 전설처럼 푸르르다' - 하영, '함포만 연가' 전문 하영 시인은 '함포만 연가'에서 함포만의 푸른 빛과 꿩이갈매기의 흰 빛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전설 같이 맑았을 함포 물빛은 깊은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함포만은 마산과 창원과 진해의 바다로 시인 묵객들이 노래했던 월영대와 더불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한낮의 따스한



햇살이 / 저물 무렵이면 다시 모여들어 / 나무는 나무끼리 / 산새는 산새끼리 쓰다듬어 / 적막도 아득한 / 길 위에 길이 여기 있는 곳" - 김명화, '안민고개' 전문 김명화 시인은 시에서 "햇살", "나무", "산새"라는 시어를 통해서 자연과 가까운 공간으로서의 안민고개를 노래하고 있다. 안민고개는 지금처럼 진해로 통하는 터널이 생기기 전까지는 왕래가 잦았던 대표적인 통행로였다. 지금은 관광객이나 등산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적막"하고 "아득"하고 그리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나무는 / 걸어진 길 스스로 축복하기 위해 / 제 발자국 위에 수를 놓는 것이다 // 제 가야 할 길 보기 위해 / 저리 환하게 축을 밝히는 것이다 // 또 한 번 험한 계절 / 가벼이 건너고자 / 불필요한 수식 버리고 / 여백을 품는 것이다" - 김일태,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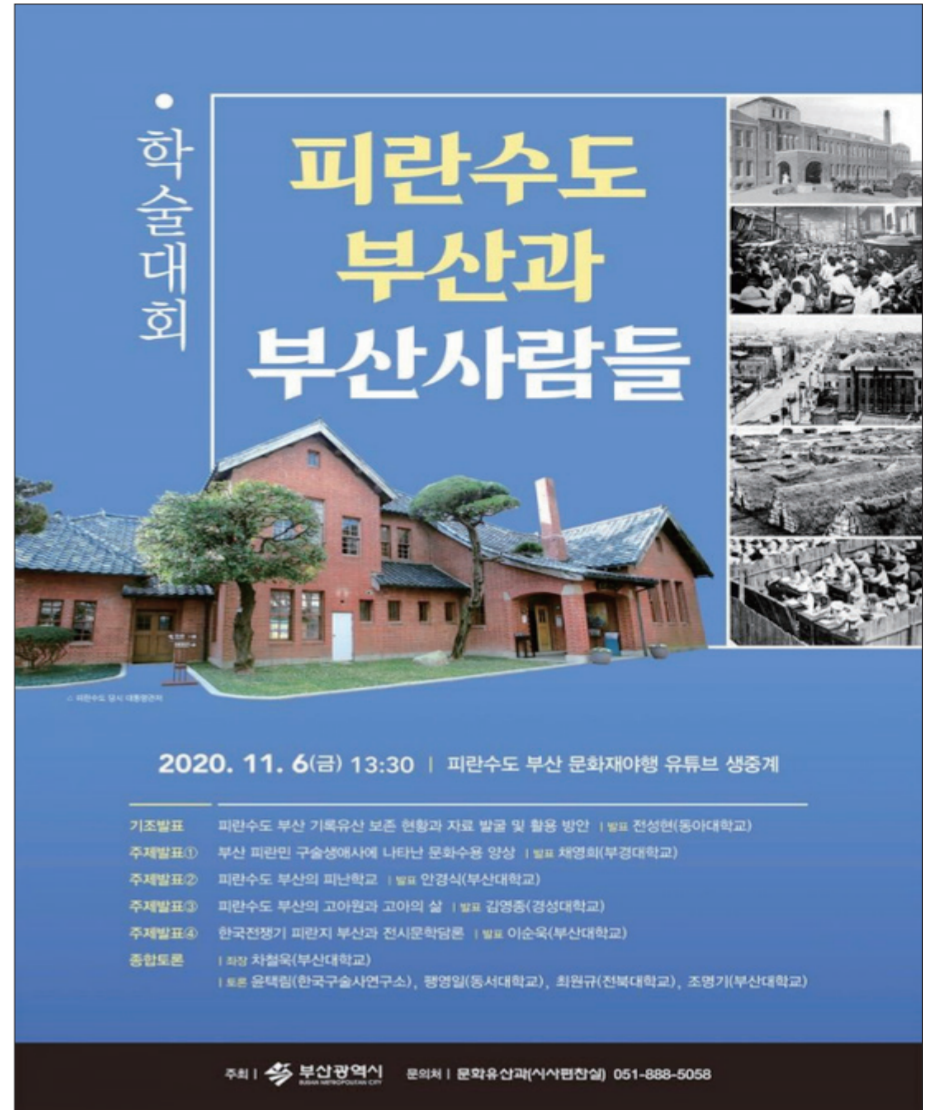
수 길 위에서' 전문 김일태 시인은 창원의 명물 가로수 길을 통해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노래하고 있다. "걸어진 길 스스로 축복하기 위해 제 발자국 위에 수를 놓는" 존재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화려한 시절은 지나가고 "험한" 시절을 건너려면 "여백"을 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백은 곧 비움이니, 비우고 나면 계절의 순환대로 다시 환한 봄날을 맞이하는 희망을 담고 있다.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전시회는 함포만이 내려다보이는 마산문화관에서 깊어가는 가을 풍경과 함께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전시회 서예를 맡은 조현관 원장은 "통합 1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을 모아 개최하는 전시회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 대한민국을 지켜낸... '피란수도 부산과 부산사람들'

부산시, 피란수도 부산의 생활사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 개최

부산시는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란수도 부산과 부산사람들'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6·25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18일 정부 기관이 이전해오고 수많은 피란민이 모여들면서 대한민국 피란수도가 된 '부산'만의 역사적 가치를 밝히고 그 시절 국난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다한 부산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특히 피란수도 70주년을 맞아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2020년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야행'과 연계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제1부에서는 동아대학교 전성현 교수의 '피란수도 부산 기록유산 보존 현황과 자료 발굴 및 활용방안'이라는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부경대학교 채영희 교수의 '부산 피란민 구술생애사에 나타난 문화수용 양상' 부산대학교 안경식 교수의 '피란수도 부산의 피난학교' 경성대학교 김영중 교수의 '피란수도 부산의 고아원과 고아의 삶' 부산대학교 이순욱 교수의 '피란수도 부산의 피란민 전시문학담론' 등의 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제2부인 종합토론에서는 부산대 차철욱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구술사연구소 윤택림 소장 동서대학교 팽영일 교수 전북대학교 최원규 교수 부산대학교 조명기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피란수도 피란민



의 삶, 피란학교, 전성고아, 전시문학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학술대회가 6·25전쟁 기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낸 피란수도 부산의 가치와 역사성을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피란수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피란수도 부산의 생활사를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 울산시, '차세대 택배장비' 추가 보급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응급상황 신속 대응 가능

울산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과 관련해 '차세대 택배장비'를 오는 연말까지 1,614가구에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출입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 일명 '택배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올해 현재까지 총 824가구에 택배장비 설치를 지원했으며 응급관리요원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보급 대상은 기존 설치된 824가구 중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은 694가구의 택배장비가 '차세대 택배장비'로 교체된다. 또한 맞춤형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정 920가구를 추가 선정해 '차세대 택배장비'를 신규로 보급한다. '차세대 택배장비'는 응급호출기, 화재·출입문·활동량감지기, 태블릿PC기반의 통신단말기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패턴과 수면상태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치매예방 콘텐츠, 생활정보 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돌봄 취약계층 어르

신들에게 신규 장비를 확대 보급해 어르신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 등 돌봄 정책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2020 부산 창업문화 페스티벌'... 온라인 시스템으로 재도약

창업카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문화 확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임시휴관 및 프로그램 운영중단 등 위기에 빠졌던 부산창업카페가 온라인·비대면 시스템 도입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부산시는 부산창업카페 도약의 신호탄인 '2020 부산 창업문화 페스티벌'을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창업카페 3곳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창업카페 3곳은 부산창업카페 1호점인 송상현광장점이 위치한 송상현광장 선큰광장을 주축으로 부경대점, 사상역점 등이다. 선큰광장에는 창업기업 제품 전시·판매 부스와 3D프린팅,

캘리그래피, 핸드메이드 제품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야외무대에서는 성공창업가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특강과 토크콘서트는 부경대점과 사상역점에도 실시간으로 중계해 창업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온라인 댓글로 참여하는 등 행사장을 찾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부경대점과 사상역점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창업기업과 전문가의 1대1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히 부경대점에서는 창업관련 영화 관람 후 토론, 사례공유, 정보공유를 하는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된다. 부산창업카페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업컨설팅, 네트워킹 등 대면 프로그램들이 중단됐으며 하반

기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해왔다. 그간 시에서는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한 네트워킹·창업특강, 창업홍보 유튜브 채널 '비스타 티브이'를 활용한 생중계 콘텐츠 제작 등 대내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대면, 비대면 혼합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창업문화 확산을 시도하는 창업카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창업문화 페스티벌을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안배했다"며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이 부산 창업카페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평택 지제역 동문곳모닝힐맘시티 2차

# 전지훈련의 메카 남원시, A급 축구지도자 양성

## AFC 지도자 강습회 유치로 스포츠 중심도시 자리매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AFC A급 지도자 강습회가 남원에서 진행된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이번 AFC A급 지도자 강습회는 얼마 전 은퇴한 레전드 이도국을 비롯한 축구선수 최효진, 지도자 황지수등을 포함한 24명이 참여했다.

AFC 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면 감독이나 코치로 활동할 수 없고 AFC A급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면, 프로축구 K리그의 코치로 활동할 수 있다. A급 지도자 자격증 획득 후 고교 이상의 전문대학에서 5년 이상 지도하면 P급 지도자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P급 지도자는 대표팀과 K리그 감독까지 수행할 수 있

다. 지도자 배출을 위한 강습회 장소로 남원시가 선정된 것은 남원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체육시설 등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소년 축구, 테니스, 육상, 복싱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들이 수차례 유치되어 증명된 바 있다. 이번 강습회 유치를 통해 남원시는 전문 체육인들의 전지훈련 명소는 물론이고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명성을 드높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중심도시로 남원시의 굳건한 위상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 남원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첫 라운드 테이블 시작

올 연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남원시가 지난 2일 시청 강당에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첫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했다.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11개 부서 총 35명이 참석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5일 구성된 행정 거버넌스 체계이다. 행정협의체 발족 이후 지난 2일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 서로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첫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회의는 문화기획 전문가이자 문체부 문화도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노 안녕스사이더티 대표가 전체 진행을 맡아 행정협의체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강조하며 참석한 직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각 테이블에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석하여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으며, 직

이남출/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산약초타운 활성화방안 모색

## 북부 마이산권 우수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전춘성 진안군수가 4일 마이산 북부 입구에 위치한 산약초타운을 찾아 활성화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지점검은 마이산 등 우수한 관광자원 활용 및 향후 휴양시설 유지를 통한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산약초 타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북부 마이산일원에 조성한 산약초 테마공원으로 14만 7천 633㎡면적에 교목류, 관목류 등 80종과 103종의 약초류가 식재되어 있으며 주변시설로는 너른 들 마당, 사상 체질원, 약초 효능원, 자생 약초원, 독초원, 생태 학습장, 산책로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

지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 마이산 북부 일원과 연계한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군은 향후 인근 임야를 활용해 포토존 설치, 친환경적인 정비, 지압로 설치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가꿔나갈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산약초 타운 활성화 방안과 종합계획 수립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부탁한다"며 "진안을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바뀌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종철/기자



## 익산 서동마, "기능성 가공제품으로 출시된다"

### 6종 시제품 개발 마쳐,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

익산시는 서동마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의 역사적 배경을 간직한 서동마를 기능성 가공제품으로 상품화해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16개 농가를 선발했으며 마영여자, 유인광, 지주 등 마 생산에 필요한 생산 농자재를 지원해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백제문화유적지구 주변 오금산에 서동마 재배시범포를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서동마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마의 기능성을 살린 가공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센터는 마젤리음료, 마빵, 마누룻지, 마분말, 마야채간편식 등 6종 시제품 개발을 마쳤으며 올 연말 금마농협에서 마분말 제품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마빵 등 서동마 가공품

들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센터는 서동마 가공품 상품화를 위해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마의 영양적 기능과 가공적성을 설명하며 가공품 개발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업체별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백제 무왕 어린 시절과 신라 선화공주와 사랑이야기를 담은 서동마에 소개된 서동마는 단마로 위장장애, 소화불량,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어 주요한 한방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익산에서 2000년대 초반에 20ha까지 서동마가 재배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서동마 재배지 심토반전과 기자재를 지원해 품질향상과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익산 서동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궁극적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군민과 함께 만드는 담양 역사박물관

### 함께 만드는 담양 역사박물관

#### 담양군 역사유물 기증·기탁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의 구성체로 활용하기 위해 담양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이르는 담양 역사 유물들을 찾아주시길 공요민선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증·기탁 절차**

**기간** 상시

**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주소: Chn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전화: 061-380-2816  
팩스: 061-380-2960  
메일: mds7764@damyang.go.kr

**대상** 담양과 관련한 고고·역사·미술·민속·사건·자료

**전시** 상설 전시실, 교육체험실, 수장고

**문의**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061-380-2816

**담양 역사박물관(건립예정)**

**기간** 2021년 ~ 2023년(예산, 2024년 개관 예정)

**시점** 전시실, 교육체험실, 수장고

**전시** 상설전시, 기획특별전시, 교육체험전시, 야외전시

## 담양군,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자료 수집 나서

담양군이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자료의 기증·기탁 접수에 나섰다. 담양 역사박물관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집대상은 담양과 관련이 있는 전시 및 연구, 교육, 활용 가치가 있는 고고·민속·사건·자료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교지·간찰·문집 등이 해당된다.

상시모집하며 기증·기탁 희망자는 담양군청 문화체육과로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유물은 유물평가

조기석/기자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작품을 중심으로 기증·기탁이 이뤄지며 무상 조건이 원칙으로 소장 권리가 분명해야 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수여, 기증명패 제작 및 기증·기탁유물 보존처리 등을 지원하며 기증유물이 박물관에 전시될 때에는 기증자명 표시 등 예우를 받는다. 또한 소장자가 매도를 원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의 구성체 역할을 하기 위해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기증·기탁된 유물은 전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 임실군 고품질 명품고추 생산농가 출하 장려금 지급

### 홍고추 수매 690농가, 3억1천2백만원 장려금 지급

임실군이 고품질 명품고추 생산에 앞장 서온 농가들에게 홍고추 출하 장려금을 지급했다.

5일 임실군에 따르면 임실군출하출연기관인 임실고추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의 안정적인 원물 수급과 고품질 홍고추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출하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홍고추를 수매한 690농가에 대해 3억1천2백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 홍고추 출하는 당초 848농가가 1,350톤을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계약 수매를 실시했다.

하지만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 병해충 등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어 농가의 홍고추 수확량이 많은 어려움에 불구하고 당초 목표대비 77%인 1,041톤의 수매 실적을 달성했다. 수매가 완료된 홍고추는 HACCP 인증 가공 시설을 통해 세척, 살균, 건조, 분쇄, 금속검출, 포장 과정 등

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심 고춧가루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 특히 임실군은 지난 8월 고추 출하계약 전농가의 고추 재배면적인 2,273,799㎡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GAP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안전 생산 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소비자로부터 맛과 품질이 좋아 임실군의 대표 특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군은 고품질 명품고추 생산을 위해 종묘지원, 멀칭비닐지원, 고추근조기·세척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올해는 최장기간의 장마와 극심한 병충해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도 고추를 생산한 농가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지원된 홍고추 출하 장려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맛과 품질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는 임실 명품고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 완도군, “바다경치 즐기며 해수욕욕하러 오세요”

## 해변공원 내 해조류센터 건물 아래 해수욕욕시설 조성

완도군은 지난 8월 전남형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완도 해수욕욕시설’ 사업이 선정되어 완도읍 가용리 해변공원 내 해조류센터 건물 아래 해수욕욕시설을 조성했다.

해수욕욕시설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일시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 동백꽃을 형상화해 디자인했으며 지압 욕족탕과 어린이용 욕족탕, 일반 욕족탕으로 평균 40℃의 바닷물이 순환되는 구조로 시설했다.

특히 완도의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 올려 모래 여과기, 살균 소독기, 바이오 기능성 정수 장치 3단계를 거쳐 바닷물을 순환·정화한다.

해수욕욕은 소염과 살균 효과가 있으며 체내 노폐물 배출, 신진 대사 촉진과 혈액 순환을 도와 머리를 맑게 해 두통과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욕족을 하는 동안 해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어 힐링하기에 그만이다.

해수욕욕시설은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말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단 시범 운영한다. 이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2021년 3월부터 군민 및 관광객에게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완도읍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은 “올해 다리 수술을 해서 저리고 아파잡을 폭 못 자서 힘들었다”며 “가을 섬 여행 기간 동안 해수욕욕시설을 이용했다니 3일째부터 통증이 덜해잡을 편히 잘 수 있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전종실 지역개발과장은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타인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인 해수욕욕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 전남도, 수도권 ‘전통식품’ 특별 판매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서 전남 전통식품 등 200여 제품 판촉

전라남도도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양재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통식품 특별 판매전’을 펼친다. 이번 특별 판매전에는 여수 돌산갯영농조합, 장성 북하특산물사업단 등 15개 업체가 참여하며 갯감치를 비롯 배추김치, 장아찌, 젓갈 등 전남산 전통식품과 농수산물을 가공한 200여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전라남도도는 양재농협 하나로마트 1층 야외 메인 판매대에 자리 잡고 다양한 전통식품과 농수산물 가공제품을 집중 홍보하게 된다. 특히 시식을 통해 맛과 품질을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 구매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판촉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협 마케팅부서와 연계해 직거래장터 전단지 제작을 비롯 경품 이벤트행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해 성공적인 판촉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했다.

올 양재 하나로마트는 국내 농협 하나로마트 중 매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라남도도는 이번 홍보·판매전을 계기로 전남지역 농식품 업체가 양재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을 희망할 경우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식품 소비 및 수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은 전통식품업체와 우수 농식품업체들에게 소비자와의 직거래 기회를 제공해 매출 증대는 물론 우수한 제품들이 구매약정에서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진도군, 뽕할머니 공중화장실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올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중 전남 7곳 선정

LED 조명, 안심 비상벨,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휴게시설 설치

진도군이 ‘제20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조선일보와 화장실 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전국의 공중화장실이 지원한 이번 공모에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진도군 뽕할머니 공중화장실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조성된 뽕할머니 공중화장실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인근에 위치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장실 내부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조명 설치하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비상벨과 CCTV, 장애인을 위한 전용 화장실 설치, 유아 동반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 유아 거치대도 설치했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 차단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시 점검도 해 안전한 처



안 체계 구축과 여성 범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등 사람 중심 화장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선

진 화장실 문화와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 전남도, 이외 다양한 비대면 테마여행도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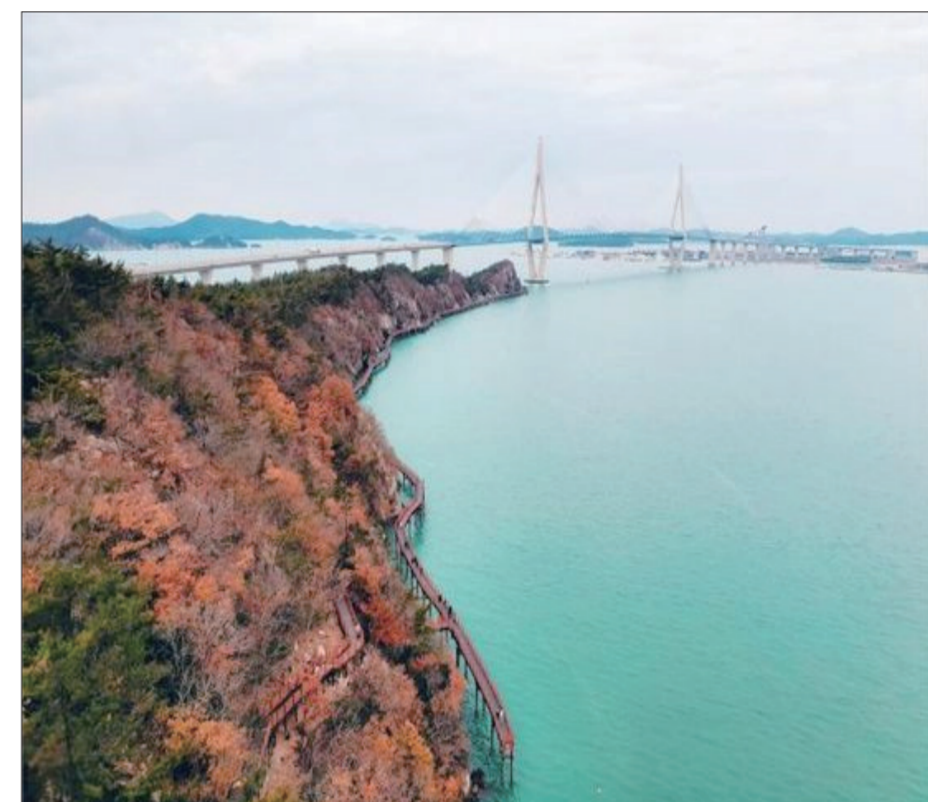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전남지역의 7개 관광지가 선정됐다.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대안 여행지를 발굴하고 유명관광지에 편중된 여행수요를 분산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한 여행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선정된 전남의 관광지는 목포 고하도 해상테마파크 나주 은행나무 수목원 곡성 대항강 자연휴식공원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 화순 만연산 오감연결길 해남 화원 오시야노 관광단지 영광 물무산 행복숲 등으로 가을에 찾기 좋은 아름다운 장소들이다.

각 여행지들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의식구식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전라남도도는 코로나19 시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숨겨진 관광지, 개방된 관광지 등을 다양한 테마로 홍보하며 침체된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의 섬과 바다를 잇는 연도·연륙교를 자동차로 여행하는 ‘남도 힐링브릿지 여행’ ‘췌, 우리끼리만 살짝’이란 테마로 남몰래



전남의 가을명소를 여행하는 ‘2020 남도 가을여행’ 코로나19 시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남의 숨겨진 명소를 여행하는 ‘슬기로운 잔내투어’ 등이 있다.

이 곳들에 대한 정보는 전라남도관광포털 남도여행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동 전라남도관광과장은 “관광객들의 안전여행을 최우

선으로 생각하고 전남의 비대면 관광지, 숨겨진 관광지들을 기획해 소개하고 있다”며 “전남의 비대면 관광지 100선과 다양한 테마여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마음도 펴고 힐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 물을 검색하세요

청정 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o.co.kr  
문의전화 054-683-7300



# 부평구, 경제 발전 공헌한 기업인 4명 중소기업인상 선정

##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코로나19 극복해

부평구는 3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해 부평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4명을 중소기업인상에 선정했다.

이번 중소기업인상은 기업 및 경제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경영부문 2명과 기술부문 2명 등 총 4명을 각각 엄선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경영부문에 조덕형 ㈜덕성그린텍 대표와 이대봉 이광학기기 대표, 기술부문에 장성철 ㈜참솔테크 대표, 전영철 ㈜주원엘리베이터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덕형 대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평가됐다. 특히 복리후생 및 경영성과 배분, 노사관계 안정화, 산학연계프로그램 지원, 부평국가산업단지 환경사랑 활동, 경로당행사 및 봉사활동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을 펼쳐 부평구 발전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덕성그린텍을 기술력과 품질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광학기기는 소형 및 대형 광학기기 제조업체로 이대봉 대표는 초점이 변하지 않는 고니오미터, 수동측각대, 펄스형 레이저 시스템, 레이더용 3차원 공간 스캔 장치, 비구면 반사거울용 형상측정 장치 등 독자적인 특허기술력을 확



보해 가격경쟁력 및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했다.

또 부평구 경제단체 활동을 통한 기업체간 정보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술부문의 장성철 대표는 국내 최초의 전산 및 통신설비 면진장치 기업이다.

장성철 대표는 세계최초 문화재용 면진장치와, 발전소용 계측제어설비 면진장치를 개발해 국가 정보통신 설비 및 문화재 보호 면진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영철 대표는 승강기 보수 및 수리공사 기업을 경영하면서 오랜 기간 축적된 승강기 정비기술 및 고속승강기 관리능력과 신기술 개발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부평구 두드림마당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 트로피가 수여된다. 부평구는 매년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 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루고 국내외 매출성장을 기록해 부평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부단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첨단기술, 신기술 및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발명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높여 부평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찾아 표창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 중소기업인상에 선정된 네 분께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발전이 이바지할 숨은 기업을 발굴해 적극 알리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 부여 만석영농조합법인 이만규 대표, '임업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지난 10월 30일 대전 케이 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부여 만석영농조합법인의 이만규 대표가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법정기념일인 '임업인의 날'은 매년 숲 가꾸기 기간의 첫 날인 11월 1일에 우리 주변의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지정됐다.

이만규 대표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1992년부터 밤나무, 참두릅, 밤 등 인산물을 재배해 가공·유통을 통해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 밤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한 밤 줍기 행사를 매년 추진해 지역기업과



임업인들이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지역 임업단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만규 대표는 "올해 첫 임업인의 날에 산림부

야 최고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임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한국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 박영옥회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 27년간 농촌여성지도자로서 농업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박영옥 한국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장이 4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전국생활개선회 일한마음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3년부터 생활개선회 활동을 시작한 박영옥 회장은 2019년 생활개선회 연합회 감사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와 농촌여성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원만한 성격과 남다른 친화력으로 회원들과 함께 활발히 소통하며 생활기술과제 보급에 앞장서며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촉진, 지역농산물 명품화, 생활자원과제 보급 실천 등을 통해 농업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힘을 보태 활력 넘치는 농촌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 너, 우리,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실천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해 중앙·도·시군 생활개선회장, 관계관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80,000명의 전국 생활개선회원들은 온라인으로 대회를 함께 했다. 최만식기자



# 본상 아룬다티 로이, 특별상 김혜진 선정

## 본상 수상작가 아룬다티 로이, 온라인 기자간담회 11/10 개최

은평구는 '제4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인도의 아룬다티 로이를, 특별상 수상자로 김혜진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신 통일문학의 대표 문인인 이호철 작가의 문학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고 향후 통일 미래의 구심적 활동을 지향하고자 2017년 은평구에서 제정한 문학상이다. 은평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제4회 수상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8회 개최해 심사와 토론을 통해 수상 작가를 선정했다. 본상 수상 작가로 선정된 아룬다티 로이 작가는 인도 출신의 소설가이며 시·민운동가이다. 그는 주로 종교, 악습, 카스트 제도, 계급에 의한 갈등과 차별을 주

제로 약자를 배제하는 자유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요 저서인 '작은 것들의 신'과 '지복의 성자'에 담았다.

치열한 문제의식을 담은 인도 역사를 평화로 회귀하였던 점에서 '이호철'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데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본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을 수상한 김혜진 작가는 주요 저서인 '9번의 일'이라는 소설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의 엄혹한 경제 현실을 치밀하게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내적 투쟁의 치열함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계층적 양극화 양상을 역설적으로 인간 행복의 참다운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은평구는 2020년 11월 10일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 19층에서 '제4회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본상 수상 작가와의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향후 상황 예측이 어려워 내년도 '제5회 시

상식'과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은평구 정책 관계자는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이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학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유지하는 버팀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안성종합사회복지관, '1인 9988 특특쇼' 오카리나 최우수상 수상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을빛 오카리나앙상블' 소속 이정은 회원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2020 어르신 문화예술 경연대회 1인 9988 특특쇼' 본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99세까지 88하게 문화예술을 즐기며 끼가 톡톡히 튀는 어르신들 무대로 초대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UCC를 통해 비대면 심사와 예선 경연을 진행했으며 본선 경연 역시 무관중으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이정은 회원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노을빛 오카리나앙상블' 동아리에서 꾸준히 오카리나를 연주하며 갈고 닦은 대담으로 본선 대회에서 '숲의 댄스'라는 곡명으로 참가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개발한 재능을 사회에 참여해 함께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 이천아트홀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연극 '나와 할아버지'

이천아트홀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연극 '나와 할아버지'를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해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2020년 이천아트홀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디토', '나와 할아버지', '토리스 스토리' 등 세 개의 공연이 선정되어 지난 8월 15일 '여름방학 클래식 - 이상한 나라의 디토'를 시작으로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시간에 접속한 모든 이천시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극 '나와 할아버지'는 2013년 첫 공연 당시 전 회차 매진과 함께 100%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모은 작품이다.

그 이후 재공연 당시에도 소박하지만 진한 감동으로 관객의 마음을 울리며 평단과 관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와 이에 지지않고 받아치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쪽을 정신없이 오가는 손자 '준희'의 이야기를 담고있는 이 작품은 연출가 '민준호'의 실제 이야



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작품의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다. 또한 '공연배달서비스 간다'만의 특유의 반짝이는 재치와 재기 발랄한 유머가 가득한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작품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고 여는 연극에서 느낄 수 없는 생동감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표치수' 역할로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많은 사랑을 받은

'양경원' 배우가 '할아버지'로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멜로드라마가 쓰고 싶은 공연대본작가 '준희'가 할아버지의 옛사랑을 찾아 나서게 되며 만나는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수필처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내는 이번 공연 '나와 할아버지'는 11월 7일 단 하루만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박상찬기자

### 시흥시, '건강·도·시로 사행시 짓고 치킨먹자'챌린지 진행

시흥시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도시' 사행시 짓기 챌린지 이벤트를 운영한다.

챌린지는 11월 2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시흥시보건소 건강도시과 계정을 팔로우 하고 사행시 이벤트 게시물 댓글에 '건강도시 시흥'에 바라는 점이나 개인의 생각 등을 '건·강·도·시' 사행시로 지어등록하면 된다. 의미 있는 사행시를 창작한 10명을 선정해 치킨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또한 선정된 10개 작품은 건강도시 홍보물 및 관련 책자에 수록할 예정이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의 내용을 알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하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 이천아트홀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연극 '나와 할아버지'

이천아트홀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연극 '나와 할아버지'를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해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2020년 이천아트홀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디토', '나와 할아버지', '토리스 스토리' 등 세 개의 공연이 선정되어 지난 8월 15일 '여름방학 클래식 - 이상한 나라의 디토'를 시작으로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시간에 접속한 모든 이천시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극 '나와 할아버지'는 2013년 첫 공연 당시 전 회차 매진과 함께 100%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모은 작품이다.

그 이후 재공연 당시에도 소박하지만 진한 감동으로 관객의 마음

을 울리며 평단과 관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와 이에 지지않고 받아치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쪽을 정신없이 오가는 손자 '준희'의 이야기를 담고있는 이 작품은 연출가 '민준호'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작품의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다.

또한 '공연배달서비스 간다'만의 특유의 반짝이는 재치와 재기 발랄한 유머가 가득한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작품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고 여는 연극에서 느낄 수 없는 생동감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표치수' 역할로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많은 사랑을 받은 '양경원' 배우가 '할아버지'로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멜로드라마가 쓰고 싶은 공연대본작가 '준희'가 할아버지의 옛사랑을 찾아 나서게 되며 만나는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수필처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내는 이번 공연 '나와 할아버지'는 11월 7일 단 하루만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박상찬기자



### 거창문화재단, 2020 현대회화 15인 '어제와 오늘 전' 개최

거창문화재단은 다가오는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거창문화센터 내 전시실에서 2020 현대회화 15인 '어제와 오늘 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초대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전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으나 11월 10일 프리오픈으로 전시문을 연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작품은 한국회화의 '어제', 현시점의 현대회화 방향을 알 수 있는 '오늘'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화단의 총추적 역할을 해온 거창 출신의 이상남 화백 등 한국을 대표하는 회화작가 15인을 구성해 작가들의 다채로운 색감이 담긴 작품 45여 점이 전시된다.

구인도 거창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현대회화 작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초대전을 통해 거창군의 문화예술이 더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남녀노소가 즐기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전시를 준비하겠다"고 전하며 더불어 "전시회를 통해 군민들이 코로나19 속의 힘든 일상의 기억을 지우고 감성적인 여유를 찾아 삶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전시실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관리에 철저

를 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관람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관람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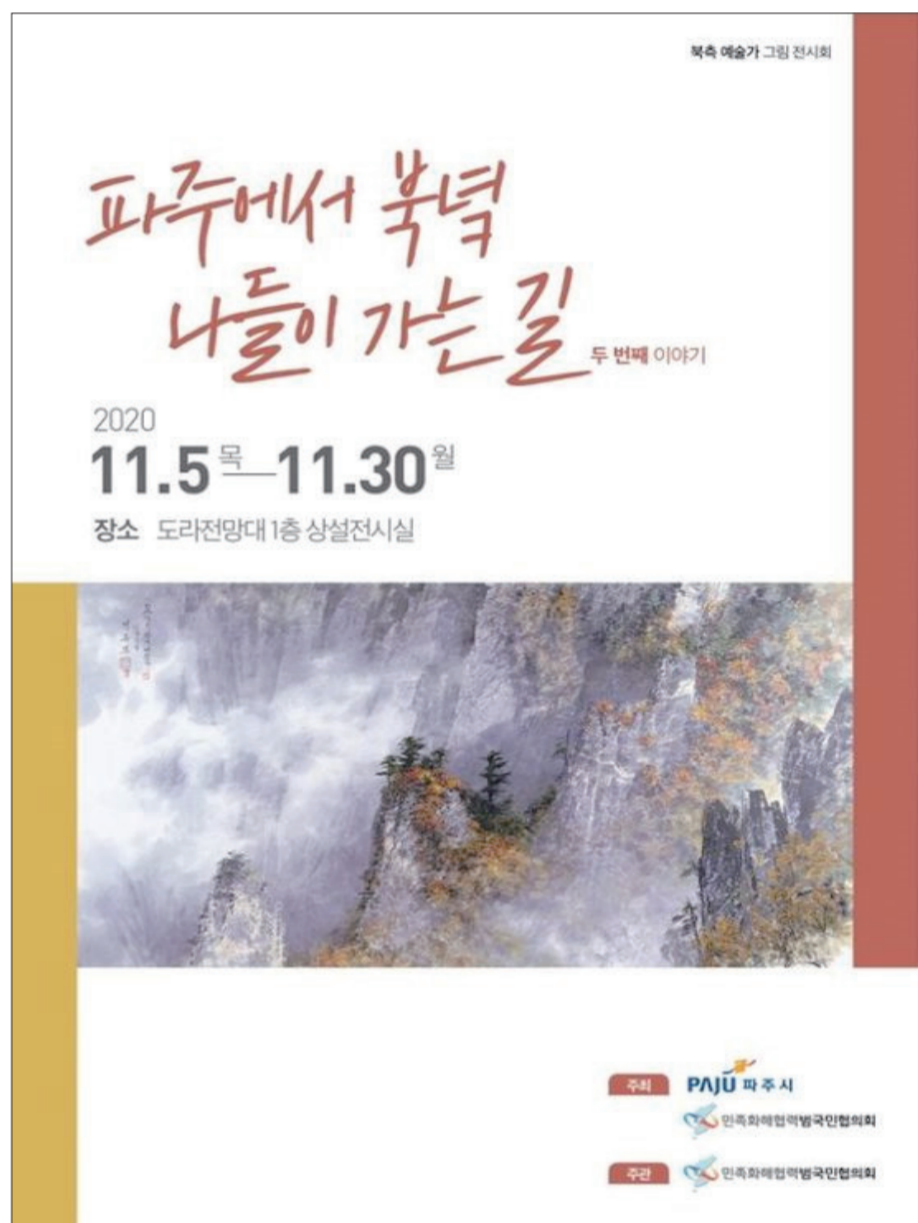
송인용/기자

###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 개최

파주에서 북녘 나들이 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

파주시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도라전망대에서 '파주에서 북녘 나들이 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파주시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라전망대를 방문한 파주시민과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화가 미술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회째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북한 최고등급 화가인 북한 인민·공훈 예술가들이 그린 통일과 봄은 오리라 금강산 삼선암 석담 정계당 칠보산의 가을 성군관의 가을 요덕에 안개 내린다 등을 비롯해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15점의 특별한 미술작품이 전시된다. 최정환 파주시장은 "육안으로 북한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최북단 도라전망대에서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평화협력 정책을 펼쳐 남북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무안군, '늦은 가을밤의 달빛 소나타' 야외공연 개최

11월 10일 오후 7시, 승달문화예술회관 야외 특설무대

무안군은 우리소리예술단의 레파토리 공연 '늦은 가을밤의 달빛 소나타'를 오는 11월 10일 오후 7시에 승달문화예술회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승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우리소리예술단'과 미스터트롯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태권트롯 '나태주', 국악트롯 '강태관'이 출연하며 콜라보 공연, 트로트 공연, 드림 공연, 백구춤 등 다양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트롯 강태관은 무안국악원에서 수학하는 등 무안군과 인연이 깊어 군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마련했다"며 "날씨가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 따뜻한 복장을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김용, 자크 아탈리...서울 금융시장 발전 방향 찾는다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금융혁신' 화두로 글로벌 리더와 방향 모색

포스트코로나 시대,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서울 금융 발전의 전략을 모색하고 기회와 경쟁력을 확인하는 '2020 서울금융위크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가 오는 4일부터 3일간,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 확대 개관식, 금융·핀테크 유망기업 발굴 경진대회, 김용 前세계은행 총재의 기조연설로 시작하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등 총 5개 행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06년부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서울금융위크'로 확대·개최하고 있다. '2020 서울금융위크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는 전세계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및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각종 행사, 일반인 대상 디지털금융공개강좌, 서울핀테크랩 확대 개관식 등 5개 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금융위크 1일차에는 'IP 컴퍼티션'이 진행된다. 우수한 IP를 보유한 금융·핀테크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최종 현장심사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3,200만원 상당의 특허바우처를 지원한다. IP : Intellectual Property IP 컴퍼티션은 금융·핀테크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을 확보하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며 4개 기업을 선정해 서울시장상·특허청장상 및 총 3,200만원 상당의 특허바우처를 수여한다. 누구나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공개강좌'가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에서 진행된다.서울시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강의는 AI, 핀테크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산업 기술 발전 등 디지털금융 트렌드를 일반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소개한다.

디지털금융 공개강좌는 "디지털금융을 위한 알기쉬운 인공지능 이야기"와 "애, 디지털금융이 뭐냐? 핀테크를 알아야 비로소 보이는 머니"를 주제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강급석 교수와 백옥욱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2일차에는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서울시·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제 금융산업 동향과 방향을 제시해줄 저명한 국내외 연사들을 초청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개회식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이 참석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금융과 서울의 기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세션1]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세션2] '엔택트 금융' 디지털 금융혁신과 서울, [세션3] '뉴 노멀' 금융허브의 새로운 조건 순으로 진행된다.기조강연은 前세계은행 총재이자 의사 출신인 김용과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가 맡아 '포스트코로나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화두로 변화의 시기에 대응방향과 서울이 금융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이어서 폴 앤드류스, 다나카 미치야키, 브렛 킹, 윌리엄 러셀, 마크 오스틴 등 국내외 연사들이 코로나19와 디지털 금융혁신이 전세계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



향과 서울이 금융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마지막 3일차에는 100개 기업이 입주하고 1천명의 금융 혁신가들이 동시 상주할 수 있도록 연면적 12,000㎡로 확대되는 '서울핀테크랩'의 확대 개관식이 서울핀테크랩 20층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스타트업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특허청, 하나은행,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다양한 협력기관이 입주해, 핀테크 생태계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만 180억 투자 유치, 190억 매출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같은 날, 우수한 핀테크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만날 수 있는 'IR 컴퍼티션'도 진행된다.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8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하며 이 중 8개 기업을 선발해 총 1,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IR 컴퍼티션은 참여 기업 간의 발표 경쟁 방식으로 사업모델 및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심사한

다.서울시장상·금융감독원장상·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상 및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이번 '2020 서울금융위크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세부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특히 1일차 "디지털금융 공개강좌" 및 2일차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등록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서울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서울금융위크는 금융도시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핀테크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특허청, KAIST,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행사로 구성했다"며 "특히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자크 아탈리 프랑스 석학 등 글로벌 리더가 참여하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 등 전례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무안양파 가공식품 '중국 첫 100만 불 수출 상차식' 개최

### 무안 양파간장, 알리바바 등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무안군은 지난 10월 30일 환경면 ㈜조록당에서 무안양파 가공식품인 양파간장의 중국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이해자 도의원과 박용재 전남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파 가공식품의 중국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과 커팅식을 진행했다.군은 양파간장을 시작으로 알리바바 타오바오, 웨이디엔 등 온라인과 홍고자유무역성, K-MART 등 오프라인으로 중국시장에 무안의 농수특산물 수출을 확대해 갈 계획이며 이날 행사에 앞서 무안군과 전남농업기술원, ㈜JHE 글로벌과의 중국 100만 불 수출협약도 체결했다.이번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파간장은 ㈜조록당에서 2010년도

에 개발한 제품으로 국간장, 맛간장, 맛능간장 등 순양파장 3종이며 양파를 원료로 간장을 생산해 남도장터 등 꾸준히 매출을 올리는 건설한 기업이다.또한 ㈜JHE 글로벌은 알리바바 그룹 수행사의 경력을 가지고 중국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수특산물과 농식품을 수출하는 중국수출 전문업체이다.황이대 기술인력팀장은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 개발과 판촉행사, 농식품 유통을 위한 수출 마케팅보드 육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맛과 영양이 탁월한 무안양파 위상에 걸맞는 가공식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판매를 늘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기업의 매출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기석/기자



## 1천억원 규모 인공지능 투자펀드 조성됐다

### 광주시, AI투자펀드 업무협약 체결...1048억원 펀드조성



광주광역시시는 3일 오후 상무지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펀드 운용사와 함께 '인공지능 투자펀드 광주시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광주테크노파크가 100억원을 공동 출자하고 지난 7월 초 ㈜티엔엔 인베스트먼트-COLOPL NEXT와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운용사로 선정돼 총 1048억원 규모로 조성됐다.인공지능 투자펀드는 내년까지 총 조성 예정 금액의 20%인 200억원 이상을 광주시기업 또는 1년 이내 광주로 분사, 연구소, 공장을 이전하는 AI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역의 우수한 AI창업 기업 발굴 및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광주시-광주테크노파크-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펀드 운용사 간에 광주시기업 투자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이 담겼으며 수도권 AI기업의 광주지역

유치를 비롯한 광주의 AI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컨설팅 지원, AI 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술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무 협약식에 이어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는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펀드 운용사 투자심사역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21개사의 발표와 기업-VC간 일대일 개별상담이 4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도, 매월 초 지속적으로 VC와 인공지능 기업이 만날 수 있는 월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용섭 시장은 "불모지였던 광주에 AI기업의 생태계가 점차 갖춰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몰려오고 있다"며 "이번 AI투자펀드 조성으로 창업초기에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투자금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용/기자

## '장흥 찹쌀' 이마트 입점, 전국 유통망 확보

### 용두농협 브랜드 찹쌀 '가치지은' 전국 이마트 143개 매장 납품

장흥찹쌀이 국내 최대 유통 채널인 이마트에 입점돼 전국 판매망을 확보했다.장흥군은 용두농협에서 생산한 장흥찹쌀 420톤을 지난 2일 전국 이마트 143개 모든 매장에 납품했다고 밝혔다.용두농협은 올해 장흥군과 협력해 본격적인 찹쌀 브랜드 '가치지은'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후 이마트 측과 꾸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3kg 단위 소포장 찹쌀 상품 14만포를 이마트 전국 매장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두농협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매년 이마트 납품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장흥군 찹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전문 컨설팅업체와 진행하기로 했다.품질 균일화를 위해서는 계약재배 농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군 용두농협은 그동안 장흥면과 장평면 지역 400여헥타, 755ha에 계약 재배를 통해 매입한 찹쌀 중 75%를 원료곡인 조곡 상태로 판매하는 등 유통망 확대와 찹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이 같은 어려움을 새로운 찹쌀 브랜드 '가치지은' 개발과, 이마트 납품으로 단번에 해결하게 됐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자연 재해와 병충해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낸 우리 농업인과 지역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고품질 장흥찹쌀 생산과 판로 확대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정길/기자



## 부여 입주기업 (주)청정테크·밤뜨래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부여군 은산2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주)청정테크와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이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다.지난 2016년 은산2산업단지에 입주한 (주)청정테크는 염소투입기 및 하수처리장비 등 상하수도 처리사업의 확장을 위해 제2공장을 증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약 3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망 기업이다.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은 은산2산업단지에서 10여년 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밤 가공식품을 주력으로 사

업을 영위하면서 부여 밤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선도 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 자사 밤 제품을 수출하는 등 해외에서도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유망중소기업은 충청남도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하기 위해 도내 제조업체 중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면서 기술과 품질 수준이 우수하고 기술혁신 노력 및 시책 참여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11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고정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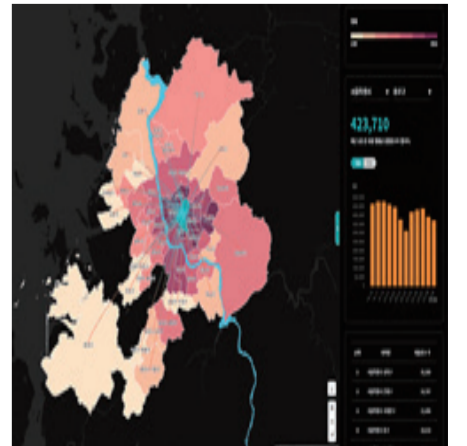
##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유통인구 지도 고도화 서비스

통계청과 SK텔레콤은 2020년 11월 5일부터 모바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통인구 지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작년 12월에 오픈한 시군구별 인구 유입과 유출 현황 외에도 실거주인구와 등록인구, 여행 및 상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도상에 시각화해 보여준다.교통, 관광 등 인구 이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평가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통계청과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지도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 모바일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한 통계 등을

생산·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찬/기자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